

소설의 정전성과 시공간의 의미*

— <서울, 1964년 겨울>과 타이완 소설 《타이베이 사람들》 비교분석 —

張東天**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작품의 정전적 특성
3. 소설적 크로노토프와 관념화된 시공간
4. 정전화와 시공간 의식의 작용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하나의 문학작품은 유사한 장르들과 상호관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작품 밖의 현실·시대·작가 등과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자는 작가가 살아가는 시대의 언어관습이나 통사구조, 장르사이의 넘나듦 등 일종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텍스트에 내재된 외적인 현실과의 구조적 유사성(homologie)으로 이해될 수 있다.¹⁾ 그런데 후자의 경우, 실제 현실과 작가

* 이 논문은 修平科技大學 應用中文系 주최, 國立臺灣文學館 合作으로 2012년 6월 2일 타이완 타이중(臺中) 시에서 개최된 「臺灣文學與文化創意」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어로 발표한 것을 번역·수정한 것임. 또한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Supported by a Korea University Grant).

** 고려대학교 중문과 교수.

1) 한월균, <문학과 공간: 그 이론적 모색>,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 콘텐츠》(서울: 청동거울, 2005), 18쪽.

에 의해 재구성된 미학적 현실 사이의 관계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 현실은 작품 속에서 체험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거나, 또는 상상력을 유발하는 최소한의 동기로 활용되거나, 아니면 무의식을 통해 완전히 변형되거나 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작품의 미적 구조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면, 어느 쪽이건 작가의 체험이 가장 중요한 분석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 역시 작가가 체험한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변용되고 굴절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작가가 시간과 공간을 서술한다는 것은 작가에게는 내면화된 체험을 담아내는 작업이며, 반대로 작품에 있어서는 체험의 내면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센용(白先勇)과 김승옥의 소설은 비록 타이완과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통적 유가 사회에서 벗어나, 전쟁과 이념의 상처로 얼룩지고 농촌이 해체되어 급속하게 도시로 편입되는,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근대화 체험 안에서 탄생하고 수용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센용의 《타이베이 사람들 臺北人》은 1949년 중국 대륙의 공산화를 전후하여 대륙으로부터 밀려나온 세대들의 상실감을 통해, 1960년대의 타이완사회를 감성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타이완에서 오랫동안 정전(Canon)의 지위를 누려왔을 뿐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대륙에서조차 정전으로 추앙되는 작품이다. 한편 김승옥의 단편소설 <서울, 1964년 겨울>은 1960년대식의 도시민사회를 밀도 있게 묘사함으로써, 한국 소설의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 작품은 발표 당시 낯선 형식과 문체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타이베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한국 문학의 정전으로 굳어졌다.

이 두 소설이 정전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물론 1960년대라는 역사적 시간과, 타이베이와 서울이라는 수도(首都)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타이베이와 서울은 각각 작가 당대의 도시가 띠고 있는 사회적 정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기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소설이 분명한 시공간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양국에서 정전적 지위를 지니는 작품이라는 점은 본고아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본고는 이하에서 작품 속에 내면화된 시간과 공간이

작품의 정전성, 혹은 정전화 과정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들의 수용 과정에서는 또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두 소설의 구성 차이로 인해, 바이센용의 《타이베이 사람들》은 평행적으로 전개되는 14편의 단편소설들을 두루 검토할 것이나, 김승옥의 작품은 작품집 《서울, 1964년 겨울》을 대상으로 하되, 단편 <서울, 1964년 겨울>을 중심으로 연역적인 분석을 기하도록 한다.²⁾

2. 작품의 정전적 특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이센용의 소설 《타이베이 사람들》은 1949년 국민당 정부의 남하와 함께 타이완으로 밀려나온 대륙출신 인물들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14편의 단편소설로 구성된 이 연작소설의 주인공으로는 하인이나 작부, 국수집 주인 같은 하층민도 있지만, 주로 과거 대륙시절에 국민당 군대나 정부에 몸담았던 장성·요인·지식인, 그리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화류계 사람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이 소설에서는 과거 어느 시기에 중산층 이상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소설의 서사는 대부분 피난지로 밀려난, 곧 대륙에서 ‘쫓겨난’ 인물들의 과거에 대한 회한으로 채워진다. 인물들은 대륙시절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여 과거의 시간을 타이완의 현실 삶 속에 응집시킨다. 그들은 비록 타이베이에 거주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대륙에 머물고 있기에 대륙에서의 지나간 삶은 그들에게는 정체성을 표상하는 토LEM이나 다름이 없다. 반대로 그들에게 현재라는 시간 속의 타이완이라는 공간은 정서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 때문에 《타이베이 사람들》은 발표 이후 타이완 본토 출신의 작가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귀족소설’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하기

2) 김승옥의 첫 작품집 《서울, 1964년 겨울》(창우사)에는 모두 11편이 수록되어 있지만, 각 편들의 내용적인 유기성은 《타이베이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편이다.

도 했다.³⁾

하지만 소설의 탄생배경에 존재하는 역사성을 고려한다면, 작가의 구상 의도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작가 바이셴융은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고향 대륙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의 충격에서 비롯됐다고 했다.⁴⁾ 대륙의 재난은 작가에게 ‘문명의 궤멸(文明毀滅)’이라는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러한 ‘문명의 궤멸’에 대한 감지는 시대의 격변과 역사적 전환에 대한 예민한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타이베이의 사람들’을 통해 그려낸 끝 모를 쓸쓸함은 개인적 감수성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 같은 시대를 가로지르는 역사적 격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허망하게 ‘대륙진격(反攻大陸)’을 외치던 시대의 상실감과, 낯설고 격리된 도시 타이베이의 공간적 황량함은 소설 속에서 시공간을 채우는 기본적인 정서가 된다. 시간과 공간상의 상실감과 황량함은 소설의 인물들에게 실존의 의미를 환기하고 또 강화시킨다. 소설에서 전개되는 그 시절 일상의 다양한 풍경들은 물론 작가 개인의 체험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처럼 그것들이 발산하는 강렬한 시대의식으로 인해 보편적인 공감을 얻게 되었다.

1964년에서 1970년 사이에 발표된 《타이베이 사람들》은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완의 독보적인 소설 정전이 되었다. 그 위력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새 천년을 맞는 기념으로 1998년 타이완의 《연합보 聯合報》가 주최한 ‘30대 경전(經典三十)’ 선발에서 이 소설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2004년 베이징에서 거행된 ‘베이징 문학축제(北京文學節)’에서도 작가 바이셴융이 ‘베이징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국어 작가로 선정되었다. 2011년 타이완대학에서 진행한 ‘타이완대학 명저 읽기 프로젝트(臺大經典閱讀計畫)’ 활동을 보면, 여기에서도 이 작품이 여전히 현대소설 가운데 반드시 읽어야 할 정전으로 취급됨을 알 수 있다.⁵⁾ 특히 이제까지 문언문(文言文)의 비중이 높았던 타이완의 고등학교 국어교

3) 《타이베이 사람들》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서는 彭瑞金, 《臺灣新文學運動四十年》(臺北: 爾雅出版社, 1995) 참조.

4) 臺灣 《聯合報》 1999년 3월15일자 「文化」 판.

5) 목록 중 소설류에 선택된 타이완 작품은 다음과 같다. 白先勇의 《臺北人》, 黃春明的 《羅》, 王禎和의 《嫁妝一牛車》, 張愛玲의 《半生緣》, 陳映真的 《將軍族》, 吳濁流的 《亞細亞的孤兒》, 王文興의 《家變》, 七等生的 《我愛黑眼珠》, 李昂의 《殺夫》, 姜貴的 《旋風》.

육에서, 백화문(白話文) 정전으로서 바이센웅 소설은 대학입시에서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다.⁶⁾ 이 작품은 한국어를 포함한 7개국 이상의 외국어로 번역되어, 외국에서도 가장 지명도가 높은 타이완 소설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편, 김승옥의 단편소설 <서울, 1964년 겨울>은 1965년 6월 《사상계》 월간에 발표되어 그해 한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인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 1950년대의 전쟁 문학이 갖는 엄격한 교훈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실상을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깨닫는 과정을 일인칭 주인공시점으로 형상화 한 소설이다. <서울, 1964년 겨울>은 분단에서 전쟁, 그리고 4.19 혁명의 실패로 이어지는 한국의 정치사회적 좌절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작가는 그러한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 결과로 나타난 인간 사회의 교감 형식, 즉 개체와 개체라는 인간관계를 통해 우회적으로 묘사한다.

25세의 구청직원인 '나'와 성이 '안'인 대학원생, 그리고 가난뱅이임이 분명한 삼십오륙 세 가량의 '사내'가 포장마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다. 이들은 “안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김 형,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따위의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다. 30대의 사내는 전날 죽은 아내의 시신을 4천원을 받고 병원에 팔고 온 터였다. 사내의 제안에 따라 그들은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밤거리를 쏘다닌다. 그들은 통행금지 전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돈을 탕진하려고 거리를 배회하게 되는데, 결국 그 사나이는 못 다 쓴 아내의 시신 값을 불이 난 건물 속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셋은 여관에 들어 각각 판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30대의 사나이는 그 다음날 자살체로 발견되고 나머지 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각 헤어진다. 현실에서 소외된 고독한 세 인물은 서로 무심히 만나고 헤어지는 단순한 사건을 통해 각자 나름의 개별성을 확인할 뿐, 아무런 사회적 연대성도 느끼지 못한다.

‘臺大經典閱讀計畫’에서 선택된 나머지 중국어소설은 《阿Q正傳》(魯迅), 《傾城之戀》(張愛玲), 《邊城》(沈從文), 《圍城》(錢鍾書), 《天龍八部》(金庸) 등이다.
<http://chinesereading.blog.ntu.edu.tw> 참조.

6) <國文拚高分多讀白先勇、張愛玲>, 《聯合報》 2011년 2월 8일자 참조. 현재 타이완의 고등학교 어문교과서 5종 중 바이센웅의 작품은 4종에 수록되어 있다.(楊晉龍, <論教育·學術與文學行銷>, 周慶華主編, 《語文產業》(國立臺東大學, 2010) BOD版, 13쪽 참조)

이 소설은 한국소설이 향토적인 가족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인정주의에서 개인주의에로 변모해 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인간형의 제시를 통해 한국소설이 개인적 존재 상황으로의 변모가 가능함을 입증해보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1961년 출판된 최인훈의 《광장》이 이데올로기의 허구적 도식을 깨는 문제작이었다면, 1965년 발표된 김승옥의 첫 단편소설집 《서울, 1964년 겨울》(創又社)⁷⁾은 문단에 '감수성 혁명'을 일으킨 동시에, 공동체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개인을 발견한 첫 작품이라 할만 했다. 한국문학사에서 근대적 주체에 대한 자각과 자본주의적 일상성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감수성과 만나는 시기가 1960년대였는데, 그 서막을 연 것이 바로 김승옥의 문학이었던 것이다.

《타이베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김승옥의 작품 역시 한국에서는 정전적인 지위를 지닌다. 그의 작품은 작가가 등단한 이듬해부터, 한국에서 출판된 대규모 문학전집에 빠지는 적이 없었으며, 그중에도 <서울, 1964년 겨울>은 단편 <무진기행>과 함께 가장 많이 수록되는 작품이다.⁸⁾ 이 작품이 정전으로 받아들여진 또 다른 원인은 1987년 시작된 5차 교육과정 이래 한국의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지속적으로 수록되었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⁹⁾ 그의 작품은 발표 당시에는 작가지망생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곧이어 문학전집과 교과서를 통해 대중들에게까지 1960년대를 상징하는 정전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작품 역시 중국어·영어·러시아어·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해외에서도 일정 정도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 정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전이란 처음에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종교 경전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이것이 문학에서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고전으로 그 뜻이 넓혀졌고, 최근에는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 작품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하게 될 정도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문학상의 정전이 구성되는 원리는 대략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 번째는 정전 자체

7) 이 작품으로 1965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했고, 책은 1967년에 출판되었다.

8) 이정숙, 《김승옥 소설의 소통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4.

9) 1987~92년간 실시된 한국의 5차 교육과정 중 김승옥의 작품이 처음 도입된 상황을 보면, <서울, 1964년 겨울>이 동아출판사의 《문학》교과서에 처음으로 실렸고, <무진기행>은 진명출판사 교재에 실린 <내 누이의 이야기> 본문 뒤에 함께 읽을 작품으로 언급되어 있다.

가 지닌 속성과 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력과 문화적 헤게모니를 가진 집단이 그들의 헤게모니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적 형식으로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의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더 광범한 문화의 운동법칙에 의해 구성된다는 견해가 있다.¹⁰⁾ 하지만 종교경전이 아닌 문학정전은 영원불변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해질 수 있다. 여기에는 '선택과 배제'의 원칙이 작용하고 또한 '경쟁과 타협'의 논리가 작동한다. 이처럼 정전의 성립 배경에 권력과 문화의 함수관계가 자리하고 있기에, 정전화건 아니면 탈정전화건 그것은 종종 '시류'에 영향을 받으며, 한 시대의 문학은 그 시대 문학으로서의 숙명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은 어쩌면 중국의 고대 문학평론가였던 유협(劉勰)이, '시대의 기운이 교차하고 바뀔 때 따라 문학 창작의 내용과 표현은 질박함에서 화려함으로 대체되고 변화되었다'고 일찍이 말했듯이, 고금에 불변하는 이치일 것이다.¹¹⁾

이러한 정전의 형성 원리로 볼 때, 두 작품이 정전화되는 과정이 발표 및 전파 시점의 정치적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선 《타이베이 사람들》은 타이완으로의 천도 이후 타이완의 정치와 문화를 장악한 대륙출신자(外省族群)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편중되어 있으며, 대륙의 개혁개방 이후로는 또한 양안통일(兩岸統一)의 당위성을 감성적으로 입증하는 작품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 1964년 겨울>은 비록 현실사회에 대한 좌절감이라는 형식으로 저항적 정서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생활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소시민적 방관자의 시선을 일관하고 있고, 군사정권 시대에도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전파될 수 있었다. 두 작품의 수용 배경에 존재하는 이러한 정치적 의미는 1970년대 이후 타이완과 한국 양 지역에 불기 시작한 민족·민주화 운동의 조류 속에서 재확인되고 때로 비판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두 작품의 정전적 지위를 흔드는 것이 있다면, 정치성이나 이데올로기의 혐의가 아니라 오히려 발달된 미디어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자 매

10) 송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민음사, 1997), 344쪽.

11) '時運交移, 質文代變'. 《文心彫龍·時序第四十五》. 劉勰 著·성기옥 역, 《문심조룡》(지만지, 2010), 281쪽 참조.

체의 가공할 위세에 짓눌린 독서시장의 현실을 굳이 상기하지 않아도, 《타이베이 사람들》과 <서울, 1964년 겨울>이 묘사하는 시대는 이미 ‘금석지감(今昔之感)’이 들 정도로 현재의 독자들과 감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까닭에 암울하고 폐쇄적이던 시절에 두 작품을 따라다닌 정치적 혐의는 사실상 탈각되고, 오히려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평단의 정의를 잠시 인용하자면, 그들도 진정한 문학 정전은 일정한 정도에서 가치관과 미학관의 시대적 제한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역사적 척도와 미학적 기준에서 일정한 보편성을 드러내고, 깨달음을 줄 수 있으며 많이 읽어도 새로움이 있는, 권위를 갖춘 모델로서의 작품이어야 한다¹²⁾고 말한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인식으로 볼 때, 두 작품이 시공을 초월하여 읽히고 또한 부단히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은 작품들에 내재한 정전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본고는 두 작품의 정전으로서의 문학적 힘이 작품에 내재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작가들의 의식에서도 기인한다고 파악하였다. 이하에서는 두 작품에 내재된 시공간 의식을 작품 내적인 구성과 작품 외적인 수용자적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를 통해 두 작품의 정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소설적 크로노토프와 관념화된 시공간

《타이베이 사람들》과 <서울, 1964년 겨울>은 작가가 소설을 쓰는 시점의 현재와 과거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작품이다. 시간의 연계성으로 인해 두 소설이 제목에 내세운 타이베이와 서울은 비로소 분명한 역사성을 가진 상징적인 공간이 된다. 두 소설에서 공간은 시간성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다. 바흐친(Bakhtin, Mikhail)은 소설 속의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양자가 유기

12) 陳定家, <文學的經典化與去經典化>, 《中國社會科學學術前沿(2006-2007)》,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인터넷판.

적으로 결합한 크로노토프(Chronotop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문학예술 속의 크로노토프에서는 공간적 지표와 시간적 지표가 용의주도하게 짜인 구체적 전체로서 융합된다. 말하자면 시간은 부피가 생기고 살이 붙어 예술적으로 가시화되고, 공간 또한 시간과 플롯과 역사의 움직임들로 채워지고 그러한 움직임들에 대해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두 지표들 간의 융합과 축의 교차가 예술적 크로노토프를 특징짓는 것이다.¹³⁾

소설 속에서는 작은 사건에서의 시공간의 결합으로부터 동시대 현실의 역사적 사건과 구체화된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이야기가 동시대 현실의 구조에 '접촉'해나간다. 이 때 시간과 공간이 갖는 관계가 바로 바흐친이 말한 크로노토프이다. 바흐친이 크로노토프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소설이 추구하는 동시대 현실의 포착이다. 그러나 그 현실은 어느 한 시각에서 총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전체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크로노토프는 주체의 처지와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¹⁴⁾ 곧 시간과 공간의 결합으로 읽어내는 현실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동적이고 미완결인 현재에 가능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은 작품 속에서 '유동적이고 미완결인 동시대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타이베이 사람들》과 <서울, 1964년 겨울>은 타이베이와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통해 크게 1960년대 타이완과 한국이라는 확장된 시공간의 크로노토프를 구현한다. 《타이베이 사람들》속에서 작가는 14편의 단편들을 통해 같은 시대에 타이베이를 근간으로 살아가는 대륙 출신 '추방자'¹⁵⁾들의 삶을 탐색한다. 이 단편들 속의 인물들에는 살아가는 양태는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된 정서와 감각이 나타난다. 각 단편들의 에피소드가 만들어내는 개별적인 크로노토프들은 작품집 전체의 중심적인 크로노토프를 향한 구심력을 형성한다. 《타이베이 사람들》속

13) 미하일 바흐친, <소설 속의 시간과 크로노토프의 형식—역사적 시학을 위한 소고>, 《장편소설과 민중언어》(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8), 261쪽.

14) 이강은, 《미하일 바흐친과 폴리포니아》(서울: 역락, 2011), 72쪽.

15) 상황으로 보건대 그들은, 한 지역에서 밀려났고 밀려나온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 권력층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난자'라 하기 어렵고, 또한 민족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밀려났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로 보기도 어렵다.

인물들의 공통적인 '추방자'로서의 정체성은 그들이 현실의 같은 시공간대에 살아가면서도, 또한 똑같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소설속의 인물들은 정체성을 가진 시공간과 육체가 존재하는 현재의 시공간이 분리된 특이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크로노토프 역시 현재의 시공간과 과거의 시공간이 앞뒤에 차례로 출현하거나 서로 뒤섞이는 방식으로 묘사된다.

바람이 지나가자, 화(華) 부인은 국화의 맑은 향기 속에서 코를 찌르는 꽃 썩는 비린내를 맡았다. 가슴속이 가볍게 고동쳤다. 그녀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그 며칠 동안 그의 방안에도 이런 이상한 비린내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침대 곁에 서서 의사가 고무호스를 그의 목에 끼우고, 부어서 검게 빛나는 압덩어리로부터 밤낮없이 고름을 빼내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 곁에는 밥공기만한 흰 국화 세 가지가 꽃혀 있었다. 그녀가 직접 정원에서 꺾어다 놓은 것이었다. 정원에는 '눈 덩이(一捧雪)'라는 이름의 국화가 백여 그루나 있었는데, 그것들은 시사산(棲霞山)에서 옮겨 심은 이름난 품종이었다. 그해 가을, 사람들은 일본놈들을 쫓아내니 양청(陽澄) 호수의 게마저 살이 찢다고 말했다. 난징성(南京城)의 국화들도 유난히 무성하게 피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난징성에 입성할 때, 거리로 나온 늙은이들은 남녘을 막론하고 울다가 웃다가하며 눈물을 닦았었다. 온 성안에 폭죽 소리가 가득 차 귀가 먹을 정도였다. 그녀도 웃으면서 허리를 굽히며 그에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장군님. 군대를 이끌고 개선하셨군요——"¹⁶⁾

<가을 생각 秋思>에서 화 부인의 감정은 세 개의 시공간대로 표현된다. 인용문에 보이듯이 첫 번째는 현재 타이베이 시간이며, 두 번째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던 약간 지나간 타이베이의 시간, 세 번째는 가장 과거인 대륙 난징에서의 시간이다. 상이한 시공간의 병치는 인물의 감정에 강렬한 역사성을 부여한다. 이런 방법이 더 극적으로 표현된 것은 <유원경몽 遊園驚夢>이다. 작품 전체의 시공간은 타이베이 텐무(天母)의 두(杜)씨네 저택에서 벌어지는 저녁 파티에 한정되어 있지만, 작가는 주인공인 전직 창극배우 첸(錢) 부인의 의식의 흐름 안으로 다양한 시공간을 불러들인다. 대륙에서 배우로서의 절정기에 국민당 군 장성의 후처로 영화를 누렸던 그녀에게 남편이 부재한 타이완의 현실은 다중적인 적막감을

16) <秋思>, 《臺北人》(臺北, 爾雅出版社, 2002), 228쪽.

부여한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창극인으로서 생명력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파티에 참석한 귀빈들로부터 창을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은 그녀는 마침내 정신적인 공황에 빠진다. 불현듯 엄습한 취기 속에서 그녀는 환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녀의 의식세계 속으로 난징의 화류계와 남편의 인맥을 통해 벌어진 질투와 치정, 불륜의 과거가 한꺼번에 밀려든다. 이처럼 현재와 과거의 엇갈림을 통해 구현되는 크로노토프는 작품의 실존적인 주제를 더 돋보이는 작용을 한다.

바이센송이 시공간을 상실한 사람들을 그리고 있음에 반해 김승옥의 소설들에서는 현실의 힘에 눌려 자아를 상실해가는 인간의 모습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의 소설에 묘사되는 인간은 사회와 변증법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대립적인 관계에 위치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인물들이 일상 속에서 꿈꾸었던 낭만주의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는 것은 소설의 주요한 모티브이다.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 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트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軍用)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 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¹⁷⁾

인용문에 보이듯이 <서울, 1964년 겨울>에서 구청의 병사계 직원인 '나'와 성이 '안'인 대학원생, 그리고 성조차 알 수 없는 30대 남자,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곳은 선술집이라는 공간이다. 선술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세 사람의 만남은 일상을 초월한 특별한 모습을 띠게 된다. 그들은 '파리'나 '꿈틀거림' 등에 관한 의미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이것은 체제에 순응해서 거짓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유의 추억을 상징하는 것이다.¹⁸⁾ 《타이베이 사람들》의 구심적 구성과 대조적으로 <서울, 1964년 겨울>의 크로노토프는 원심적인 구도를

17) 《서울, 1964년 겨울》(創又社, 1966), 253쪽.

18) 강운석, <김승옥 소설에 내재된 현대성의 3가지 층위>, 《배달말》제30권(배달말 학회, 2002), 187쪽.

보여준다. 즉 이 작품에서는 한 공간에서 바깥 공간으로 나가려는 운동이 반복해서 발생한다. 소설 속에서 ‘파리’와 ‘꿈틀거림’으로 시작된 욕망의 대화는 서울의 도심에 대한 시시콜콜한 대화로 이어지고, 마침내 인물들은 선술집 밖으로 나가 자정까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서울 거리를 활보하는 밤의 산책자(Flâneur)로 변신하게 된다.

“평화 시장 앞에서 줄지어 선 가로등 중에서 동쪽으로부터 여덟 번째 등은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좀 어리둥절해 하는 것을 보자 더욱 신이 나서 얘기를 계속했다. “…… 그리고 화신 백화점 육 층의 창들 중에서는 그 중 세 개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내가 어리둥절해질 사태가 벌어졌다. 안의 얼굴에 놀라운 기쁨이 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가 빠른 말씨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서대문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이 서른두 명 있는데 그 중 여자가 열일곱 명이고 어린애는 다섯 명, 젊은이는 스물한 명, 노인이 여섯 명입니다.”¹⁹⁾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소소한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서울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무의미해진 자신의 위치를 되찾기 위한 가벼운 몸부림이다. 그래서 《타이베이 사람들》에서 인물들이 현재의 공간에서 소외되듯이, <서울, 1964년 겨울>은 실존의 상실을 표현하기 위해 또한 인물을 익명화시켰다. 도시공간으로부터의 소외는 김승옥 작품의 일관된 주제이기도 했다. 바이센옹의 소설이 작가의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부모 세대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반해, 김승옥의 소설은 자기 세대의 성장통을 다룬 성장소설(story of initiation)을 통해 공간에 대한 대립과정을 묘사한다. 그러한 성장소설 가운데 <서울, 1964년 겨울>과 <역사(力士)> 등은 시골청년의 서울 입문기로 그것을 특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배경은 전혀 다르지만, 바이센옹과 김승옥의 소설은 공통적으로 이주자들의 심리 변화에 주목한 셈이다. 인물들에게 실존적 상실감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사실 생소한 곳으로 생활터전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바이센옹의 소설 속 인물들은

19) <서울, 1964년 겨울>, 앞의 책, 259쪽.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이주해 옴으로 인해 정신적 방황을 겪고, 김승옥의 인물들은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뒤 상실감에 빠진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그들은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고, 사회적인 동기 자체도 같지 않으며 실존성을 회복하는 방법도 다르다. 바이센용의 이주민들이 회귀를 희망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 반해, 김승옥의 이민자들은 이주의 자의성은 있었을지언정 돌아갈 지점 자체가 모호하게 나타난다. 바이센용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대륙 시절을 그리워하는 반면, 김승옥의 인물들에게는 서울살이의 좌절감을 대체할 따듯한 고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김승옥의 또 다른 대표작 <무진기행>에서 도시의 소외로부터의 불안과 초조에 대한 대안으로 주인공이 선택한 것은 고향 무진으로의 회귀이다. 그러나 보통의 고향이라면 지친 심신을 위로해주는 정신적인 휴식처로 묘사되겠지만, 여기에서의 고향은 부모도, 형제도, 자기 집도 없는 안식의 근거가 거세된 공간인 점에서 도시와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바이센용의 인물들이 특정한 시공간에 대한 분명한 지향성이 있는 것에 반해, 김승옥의 인물들은 시공간으로부터 정체성을 거부당한 더욱 현대화된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도시에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주인공이 끊임없이 그것을 찾기 위해 탐색을 반복하는 것은 그의 소설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1964년 겨울>의 인물들에게 존재하는 물리적인 회귀의 가능성은 《타이베이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으로만 존재한다. 이 같은 공간의 관념성은 신분에 상관없이 소설속의 인물들을 비애의 상황으로 몰아간다. 다양한 에피소드에 나타나는 비극적 결말은 시공간의 관념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또한 <서울, 1964년 겨울> 역시 1964년 겨울이라는 시간과 서울이라는 공간, 그리고 서울 안에 존재하는 많은 하위 공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만, 시공간에 융화되지 못한 인물들에게 이 또한 관념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두 소설에는 1960년대의 타이베이와 서울이라는 명시적인 시공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인물들은 과거의 시공간을 열망하거나 거부하거나 어느 쪽이든 현재의 시공간에 녹아들지 못함으로써 명시적 시공간은 인물들의 심리 속에서 분해되어 추상화·관념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또한 두 소설의 크로노토프에 내포된 역사성

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 정전화와 시공간 의식의 작용

T.S. 엘리엇은 《황무지》의 서시로 기획한 <게론천 Gerontion>(1920)에서, “생각해 보라./역사는 많은 교활한 통로와 술책의 회랑(回廊)과/출구를 가졌고, 꺾속말로 야망을 속삭여 우리를 기만하고,/가지가지 허영으로써 우리를 이끄는 것을”²⁰⁾이라고 말했다. 엘리엇은 이 시 속에서 20세기 현대인들의 무기력감과 공허감, 목적의식의 부재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운명으로서의 역사를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이 직접 역사에서 능동적으로 인식과 감정을 키울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시간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시간의식은 작가가 지닌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시간의식은 문학작품의 주제 뿐 아니라, 작가의 역사의식과 존재의식을 잘 드러내는 의식지향을 표현한다. 소설의 작가가 체험의 세계를 문학작품으로 옮길 때, 개인적 체험을 넘어서는 보편적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작품의 시간적 의미에 대한 작가의 치열한 고민이 요구된다.

한편 작가는 공간의식을 형상화하기 위해 작품 속에 많은 장치를 마련한다. 일반적인 공간이 아닌 특정한 지역을 무대로 구현하는 문학적 장소성(Place Identity)의 경우, 그것은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적 에토스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것은 작품의 주제의식 측면에서 세 가지 경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작가의 개인적 경험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실존적인 물음을 범주화하는 경우, 둘째, 동시대적인 문제를 내포하면서 현실적인 반향을 갖는 경우, 셋째, 시간과 역사와 이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그것이다.²¹⁾ 이로써 보건대 《타이베이 사람

20) 이창배 역, 《T.S. 엘리엇 전집》(민음사, 1988), 38쪽.

들》과 <서울, 1964년 겨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작가의 체험을 농후하게 드러내면서 동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품고 있는 형태를 띤다. 문학적 장소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 공간 속에 시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야 하며, 독자는 공간에 깃든 알레고리를 통해 장소를 통한 문학적 상상에 동참하게 된다.

작품 속에 내재된 시공간의식은 독자의 수용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전이된다. 앞서 우리는 《타이베이 사람들》과 <서울, 1964년 겨울>의 작품에 내재된 크로노토프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표현할 때, 공간적 현상을 그 움직임의 과정 속에서 시간 예술의 형상으로 재현해내는 것이 바로 크로노토프라 한다면, 정전으로 취급되는 문학 텍스트는 기타의 다른 작품들보다 더 활발하게 독자와 교감(바흐친은 이를 '대화'의 장'으로 설명한다)함으로써 새로운 크로노토프를 만들어내게 된다. 독자는 작품 속에 재현된 사건과 그 사건에 접해있는 작품 내의 작가를 인식하면서 독자적으로 작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 형상을 스스로 구축해나갈 수도 있다. 그리하여 작품은 작품 내에 폐쇄된 체계일 뿐만 아니라 작품 바깥의 작가와 시대, 독자까지 포함하는 시공간, 즉 확장된 크로노토프로서의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작품의 내적인 시공간과는 다른 의미에서 작품의 평가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시공간을 의미한다.

《타이베이 사람들》과 <서울, 1964년 겨울> 속에 그려진 타이베이와 서울은 1960년대라는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각별한 공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이 정전의 지위를 누리는 것은 또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란 쓸쓸하고 고뇌하는 삶의 어떤 순간들을 증거하는 내면적 형식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타이베이와 서울은 체험의 대상이자, 상상력의 공간이고, 시대적인 반향을 내포하는 정신적 공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리주(驪珠)와 위신(俞欣)이 골목에 다다랐을 때, 신이동촌(信義東村)의 골목 한 가운데에서 2,30명이 둘러서서 폭죽을 터뜨리고 있었다. 류씨네 꼬마 류잉(劉英)이 땅에 쪼그리고 앉아 커다란 로켓포에 점화를 하자, 은빛 불빛이 사람 키보다 높이 솟구쳐 올랐다. 까르르 웃음 짓는 천진난만한 얼굴이 반사되어 환하게 빛났다. 시골벽적인 환호성 속에, 꼬마들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자기들의 폭죽에 불을 붙였다. 여기저기서 빛줄기가 캄캄한 하늘을 가르고 솟구쳤다. 사방의 폭죽 소리는 갈수록 드높았고, 그밤은 벌써 폭지까지 저물어버렸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여기 타이베이시에 강림하고 있는 것이다. 22)

인용된 작품에서의 인물들은 과거 국민당 군대의 중하층 병사였던 사람들과 그 군속들이다. 대륙에서 긴 전쟁을 치렀으나 결국 타이완으로 쫓겨 나와 임시캠프(眷村)에 근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새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바이센옹은 《타이베이 사람들》 속에서 각 편의 인물들이 하나의 커다란 공간범주 안에서 암흑의 시간대를 지나는 통과례의 과정을 거치도록 설정해 놓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작가는 인물의 좌절의식이 충돌하든지 적응하든지 새로운 삶과 항상 어떤 식으로든 맞닥뜨리게 한다. 《타이베이 사람들》의 인물들은 비록 대륙의 변화한 시절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작가는 그들의 정서세계 속에 부재하는 현실의 타이베이란 공간이 소설의 말미에서 결국 그들과 만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의식의 흐름 속에서 분절되었던 현실공간이, 의식의 세계에서 현실로 빠져나와 더욱 피폐해진 인물에게 한 가닥 소통의 틈을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공간은 단순한 묘사의 무대에서, 시간의 의미가 더해진 역사적인 공간으로 승화되며 피난지 타이베이는 독자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 공간에서 소설의 인물들이 겪는 시련은 독자들에게는 인물들이 역사적 공간에서 치르는 한바탕의 통과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타이베이 사람들》에서 인물들을 정신적 혼돈으로 몰아가는 것이 잃어버린 시간, 즉 시차의 문제라면, <서울, 1964년 겨울>에서는 자본주의적 일상성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서울, 1964년 겨울>에서 묘사되는 이야기는 자본주의적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내면적 풍경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타이베이

22) <歲除>, 《臺北人》 앞의 책, 113쪽.

사람들》이 어떤 계층의 역사적 체험의 특수성에 주목한 반면, <서울, 1964년 겨울>은 인물들의 개별적 체험들의 보편성을 통해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서울, 1964년 겨울>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과 안이 30대 사나이의 자살을 목도하고 헤어지며 나누는 말은 다음과 같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짐작도 못 했으니까요. 씨팔짓,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안은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가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 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23)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라는 말은 도시적 인간관계에 대한 무감각과 관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아를 향한 통과의례에서 살아남은 주인공들은 이처럼 도시와의 대결에서 비켜서서 타협해버리는 극단적인 소시민성을 보여준다. 반면 자살한 30대 익명의 남자는 도시의 잔혹함에 의해 철저히 파멸해간 희생양이다. 고립된 인물들로 가득 찬 서울이라는 공간은 공동체가 해체되고 급속도로 개인화되어가는 현대도시로 묘사될 뿐이다. 그리하여 독자는 소설의 인물을 따라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시공간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그러나 불편하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본질을 깨달을 때, 독자는 비로소 인물의 방향에 연민을 갖게 되는 것이다.

23) <서울, 1964년 겨울>, 앞의 책, 281-282쪽.

1960년대의 타이완과 한국 사회는, 전쟁의 상흔이 아직 남아 있으면서 근대 사회로 접어들고 있었다. 1950년대의 강력한 반공(反共)적 문화억압의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한편으로 전제적 정부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개인의 목소리가 점차 사회적인 싹을 틔우던 시기였다. 타이완의 1960년대는 국민당 정부 천도 직후의 혼란과 공포로 가득찬 시기를 거쳐 경제적 도약이 가시화된 시기이다. 미국의 지원 하에 국민당 정부는 ‘공업에 의한 농업 대체’, ‘저임금의 주문자 생산’이라는 정책을 추진했고, 수출이 호조 일로에 이름으로써 경제성장률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분위기는 반공·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폐쇄적 상황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1960년대 중기에 비록 ‘대륙진격’의 국가전략은 포기되었지만, 이 국책은 1980년대 후반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국내의 선전 정책에 활용되었다. 소설 《타이베이 사람들》은 경제발전의 갈채 뒤에 가려진 정치적 억압과 그것이 초래한 황폐한 도시인의 상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한국의 196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의 재건시기를 넘어 산업화 초기 단계로 접어든 시기였다. 이 시기에 1950년대까지의 농업 중심 산업구조가 2차 산업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시작되었다. 정치적으로 1960년의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치를 무너뜨렸지만, 1961년 5.16 혁명을 통해 군사정권이 들어섬으로써 혁명의 이상은 좌절되었다. 하지만 4.19 혁명은 시민의식의 성장을 가져왔고 문학예술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1960년대 한국 문단이 보여준 ‘참여문학’에의 열의나 전통의 문제, 리얼리즘의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관심, 또는 낡은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은 모두 4.19 혁명과 그것을 이룩한 젊은 지식층의 각성에서 나온 것이다.²⁴⁾ 이 시기 들어서 비로소 제기된 억압된 자유의 문제와 산업화에 따른 개인의 자각과 소외의 문제는 <서울, 1964년 겨울>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 셈이다.

《타이베이 사람들》과 <서울, 1964년 겨울>은 창작의 모티브에서부터 역사적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작품들이다. 그런데 만약 두 작품에서 중요한 의

24)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년 여름호 참조.

미를 띠는 시간과 공간적 요소를 배제한다면 작품의 역사의식은 현저히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작가와 독자가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때, 정전으로서의 영향력은 더 크다.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정전은, 독자와 사회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역사 인식 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기억'은 개인의 기억이 아닌 사회적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고, 집단의 기억은 그 집단 구성원들과 다른 집단을 구별 짓는 정체성을 형성한다.²⁵⁾ 《타이베이 사람들》에서의 이주 외성인(外省人)들과 <서울, 1964년 겨울>의 좌절하는 소시민 청년상은 한 시대와 공간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만들어낸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1960년대라는 시간대와 타이베이와 서울이라는 공간은 역사에 대한 독자들의 보편적 인식을 전승하고 만들어내는 문화적 대상물이 된다. 이 시간과 공간은 문화적 기억에 간여하는 동시에 독자의 역사인식을 구체화한다.

그런데 문학정전으로서의 《타이베이 사람들》과 <서울, 1964년 겨울>을 통해 환기된 집단적 기억 속의 시간과 공간은 또한 문학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동아시아가 체험한 격변의 현대사와 근대화 과정은 고전시대의 정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의 정전을 필요로 했다. 그리하여 교육과 문화 제도를 통해서 지식의 형태로 고전시대와는 다른 문학정서가 제공되었으며, 제도 안에 채택된 문학정전들은 독자들의 문학정서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물론 문학정서에 대한 체험의 결과가 독자마다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문학정서 자체는 독서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자들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예술적 인식 역시 자유롭게 상상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문학정서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타이베이 사람들》과 <서울, 1964년 겨울>의 시공간성에 대한 독자들의 문학정서 역시 그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독자들의 수용과정을 통해 《타이베이 사람들》과 <서울, 1964년 겨울>에는 새로운 역사성이 더해졌다. 두 작품속의 시공간은 대중들의 문학적 정

25) 알박스(Maurice Halbwachs), 梁豪煥,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제109집(서울: 역사교육연구회, 2009), 1-4쪽에서 재인용.

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쳤고, 또한 대중들은 그러한 문학정서 속에서 자신들의 집단적인 기억을 통해 작품 속의 시공간에 융화될 수 있었다.

5. 나가는 말

바이센용의 소설 《타이베이 사람들》은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피난 나온 이민자들의 삶을 통한 실존의식 속에서 1960년대 사회에 미만한 상실감을 표현했다. <서울, 1964년 겨울>은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젊은이들의 자아와 시공간 사이의 대립과 좌절양상을 통해 시대적 허무감을 묘사했다. 두 소설의 창작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의 역할은 크게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소설은 내적 구성 면에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로 표현되는 소설의 크로노토프를 인물과 시공간의 엇갈림을 통해 관념화된 시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실존의 문제와 연결시켰다. 창작 외적인 수용 측면에서, 작가들이 체험하고 재구성해낸 시공간은 독자의 기억을 불러내는 동시에, 체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정서를 형성함으로써, 1960년대의 타이완과 한국 사회에 대한 작가적 시대의식을 탄생하게 했다. 작가들의 시공간 의식은 독자들에게 의한 보편적인 공명을 통해 새로 확장된 크로노토프를 형성함으로써, 두 소설의 정전화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였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문학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문학 정전의 무용성과 해체를 주장하는 담론은 그 어느 때보다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타이베이 사람들》과 <서울, 1964년 겨울>의 문학적 영향력을 작품이 발표된 과거의 시점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작품들의 문학정전으로서의 지위는 이제 독자들의 자발적 동기가 아니라, 또 다른 정전인 평론정전이나 문학교육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학 정전이 내포하는 순기능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 같은 제도에 의존한 정전의 유지는 여전히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동아시아 현대문학에 내포된 특유의 역사성을 고려한다면, 문학정전의 역할은 아직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며, 두 작품의 생명력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중국어자료

- 白先勇, 《臺北人》, 爾雅出版社, 2002, 臺北.
 歐陽子, 《王謝堂前的燕子: 「臺北人」的研析與索隱》, 爾雅出版社, 1976, 臺北.
 《聯合報》 1999년 3월15일자, 2011년 2월 8일자.
 彭瑞金, 《臺灣新文學運動四十年》, 爾雅出版社, 1995, 臺北.
 陳定家, <文學的經典化與去經典化>, 《中國社會科學學術前沿(2006-2007)》,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인터넷판.
 周慶華 主編, 《語文產業》, 國立臺東大學, 2010, 臺東, BOD판.

한국어 자료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창우사, 1967.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년 여름호.
 許世旭 譯, 《阿Q正傳·半下流社會·타이베이 사람들(臺北人)》三省版 世界現代文學全集 第23卷, 삼성출판사, 1988.
 미하일 바흐친,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송 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 민음사, 1997.
 강운석, <김승옥 소설에 내재된 현대성의 3가지 층위>, 《배달말》 제30권, 배달말 학회, 2002.
 김명석, 《김승옥 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2004.
 이정숙, 《김승옥 소설의 소동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4.
 김수복 편저,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 콘텐츠》, 청동겨울, 2005.

장동천, <《타이베이 사람들》의 도시공간에 대한 상상과 아이덴티티>, 《중국어문논총》 제33집, 중국어문연구회, 2007. 6.

梁豪煥, <집단지역, 역사 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제109집, 역사교육연구회, 2009.

한국문학교육협회 엮음, 《정전(正典)》, 역락, 2010.

劉 纒 著·성기옥 역, 《문심조룡》, 지만지, 2010.

이강은, 《미하일 바흐친과 폴리포니아》, 역락, 2011.

< 中文摘要 >

白先勇和金承鈺的小說雖然反映了臺灣和韓國歷史的特殊性，但大體來說，他們的小說都在擺脫傳統的儒家社會，都充滿了戰爭和意識型態刻下的傷痕，都是在農村急速變為都市的東亞普遍現代化進程中誕生的作品。白先勇的《臺北人》被認為是通過戰後從大陸遷移的逃難人們的失落與悲傷描述了1960年代的臺灣社會。他的小說在臺灣和大陸被稱讚為名副其實的經典作品。金承鈺的短篇小說《首爾, 1964年冬天》細膩地描述了1960年代的小市民社會，開創了韓國小說的新紀元。跟《臺北人》一樣，該作品在出版之時也引起了宏大反應，在韓國文壇至今仍具有經典地位。這兩部小說具有如此地位與歷史時間設定為1960年代、空間背景為同為首都的臺北和首爾有關。兩部小說所具有的明確時空性、卓越的經典地位為筆者所關注。本文將探討作品內在化的時空與作品的經典性或經典化過程有何種關聯，及其在讀者接受過程中起到了怎樣的作用。

白先勇的小說《臺北人》從大陸逃難到臺灣的移民者生活中的存在意識的角度闡述了1960年代瀰漫於社會的喪失感。《首爾, 1964年冬天》則從農村進入首爾的青年人的自我與時空間的對立和挫折這一角度，描述了時代虛無感。在這兩部小說的創作與接受過程中，時空可分為兩大部分—內部和外部。從內面結構來看，通過小說時空體在人物和時空的錯過將在觀念性時空中發生的存在問題連接起來。從創作外在的接受方面來看，作家所經歷且再建構的時空在召喚讀者記憶的同時，超越體驗限制形成的普遍情緒促使作家關於1960年代臺灣和韓國社會的時代意識的形成。作家的時空意識通過普遍共鳴形成了新擴張的時空體，積極地促進了這兩部小說的經典化。

關鍵詞: 《臺北人》、《首爾, 1964年冬天》、白先勇、金承鈺、小說的經典性、
時空意義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7. 15.	2012. 7. 30.	2012. 8. 10.	2012. 8. 21.	2012. 8. 31.